빅데이터 본 시민의 목소리

군산시, 생활 불편 신고 현황 한눈에 파악

군산시가 생활불편신고 현황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 시민불편 개선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국민신문고와 120생활불편 신고를 통해 접수된 약 5만 5천여건의 민원 접수 현황의 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생 빈도별, 지역별, 월별, 발생요인 등 다양한 분석을 수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결과, 국민신문고의 최다 접수민원은 '불법주정차'(15,463건, 37.7%) 민원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9,845건, 24%) 민원이 뒤를 이었다.

이 두 민원은 전체 민원의 약 62%를 차지해 국민신문고는 2가지 민원에 집중돼 있었다. 그 뒤로 '도로보수'(2,259건, 5.5%), '불법광고물'(1,327건, 3.2%)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불법주정차' 민원은 수송동, 나운동, 미성동 순으로 높게 나타나 상가 밀집지역 등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에서 민원 발생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 9월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475건(7.3%)이 증가해 이 지역에 대한 주·정차 민원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은 수송동, 나운동, 조촌동 순으로 높게 나타나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은 특정 시간대에 몰려 신고되는 '불법주·정차' 신고와 달리 심야시간대까지 꾸준히 신고되는 현상을 볼 수 있고, 지난 1월 ~ 9월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083건(39.8%)이 감소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 의식이 크게 개선됐음을 볼 수 있다.

또, 120생활민원의 최다 접수민원은 '보안등'(1,935건, 13.2%)이고, 그 뒤로 '불법주정차'(1,181건, 8.1%), '가로등'(1,088건, 7.4%), '방역수칙'(1,001건, 6.8%), '사체 처리요청'(903건, 6.2%)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동물관련 민원, 소음, 공사관련 민원이 뒤를 이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의 대표적인 해산물시장 상인들이 공영주차장 내 쓰레기 문제를 직접 해결에 나섰다.

"우리 시장은 우리가 가꿔나간다"

해신동 상인들, 도시재생 · 지역환경문제 개선 앞장

군산시의 대표적인 해산물시장 상인들이 공영주차장 내 쓰레기 문제를 직접 해결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해신동 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2021년 상반기 주민공모사업에 해신상가번영회 이용섭 회장을 주축으로 해신환경지킴이팀의 환경정화사업이 추진됐다.

이곳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중심시가지형 사업유형으로 상권 및 관광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지다.

이를 위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해신동 공영주차장에서 해신상가번영회를 비롯 해신동 1구역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도시재생과 등이 직접 참여해 함께 공영주차장 환경정화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공영주차장은 인근 상가의 상인을 비롯해 도매상가의 특성상 외부에서 방문하는 차량 등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한 공간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민공모사업에서 주요 무단투기 구역에 묘목박스를 설치하고, 그 중 2곳의 가로수 공간에 쉼터를 제공해 쓰레기가 적치되던 공간을 개선하고 해당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용섭 상가번영회장은 "이번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앞으로 상인들이 지역환경문제 개선에 앞장설 수 있게 된 동기부여가 됐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주민주도형 '민간기록물 구축' 뉴딜공모 선정

익산시,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 도모… 홀로그램 XR 등 신기술 체험 접목

익산시가 주민들과 함께 지역 내 일상생활과 추억, 세대 간의 역사가 담긴 민간기록물 구축 기반을 마련해 지역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도모한다.

주민이 참여하여 익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주민들이 애향심 및 자긍심을 느낄 뿐 아니라 추후 문화 관광 등 연계사업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익산의 기록 데이터로의 활용 가치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주민이 참여한 민간기록화 시스템인 '어디든 누구든 기록관'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주민 주도형으로 진행되는 '어디든 누구든 기록관' 사업은 지역 커뮤니티 매핑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민 기록 활동가 양성, 기록집 발간, 기록아이디어 공모전 및 기록화 경진대회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사회적 기반 구축 활동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주민 민간기록, 문화도시, 도시재생,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등 각종 사업에 참여했던 역량 있는 시민-전문가로 '익산시 마을 기록 활성화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 역점사업인 홀로그램, XR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주민의 일상 속에서 기록물 전시, 빅데이터 구축 및 신기술 체험과 병행시켜 많은 연령층에게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어디든 누구든 기록관'이 구축되면 지역전문인력에 의한 플랫폼 구축·운영·홍보 지속 추진을 통해 고용 창출 효과와 기록물 빅데이터를 연구, 교육, 창작, 상품개발의 원자료로 활용한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여 익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주민들이 애향심 및 자긍심을 느낄 뿐 아니라 추후 문화 관광 등 연계사업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익산의 기록 데이터로의 활용 가치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청년 기술창업 메카 '도약'

익산시가 지역기업과 손잡고 청년들을 위한 창업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청년 기술창업 메카로 도약하고 있다.

익산시는 20일 지역 기업인 'SK E&S(전북에너지서비스)', 창업전문 교육기관인 '언더독스'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창업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SK E&S(전북에너지서비스) 김기영 대표, 언더독스 조상래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협력 위드로컬(WITH LOCAL) 청년창업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 청년들에게 지역특화 산업 및 기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연계 청년 창업을 위해 시제품 개발과 창업교육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8억 5천 4백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SK E&S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는 청년창업자 교육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1억 5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총 1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이 투입된다.

이는 그동안 시가 SK E&S(전북에너지서비스)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논의해 온 결과 지역기업 및 창업전문 교육기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한 청년창업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결과다.

위드로컬(WITH LOCAL)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만 18세~39세의 창업 3년 이내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창업가 20팀을 선발해 시제품 개발비 등 최대 4,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제공하고 SK E&S(전북에너지서비스)와 교육전문 기업인 언더독스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24주차의 교육 및 특화프로그램, 기업의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

/익산=이득훈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수상

강임준 군산시장이 20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시상식에서 '행정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은 KNS뉴스통신·장애인문화신문이 주최하고 (재)국제언론인클럽, (사)서울경제인연합이 주관하는 시상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13개 부문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학회 등을 대상으로 엄선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지난 2018년 고용산업 위기라는 어려운 시기에 취임한 민선7기 군산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실현을 목표로 미래형 신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해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배달의 명수' 등 혁신적인 골목상권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강 시장은 "주력산업 붕괴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의 시민 참여를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중심의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역자본의 지역내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그간의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자립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2021년도 의사일정 최종 마무리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0일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달 11일부터 4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건의문,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20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4,555억여 원 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65건에 69억여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2.4%인 358억여 원이 증액된 1조 4,486억 5914만 원을 승인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새해 사자성어 마부정제(馬不停蹄) 선정

익산시는 2022년 시정운영의 길잡이가 될 사자성어로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선정했다.

마부정제(馬不停蹄)는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에도 익산의 미래발전에 정진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민선7기 익산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전액 상환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했고, 이를 토대로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 발행 및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익산형 경제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는 도내유일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공원 사업과 20년 시민숙원이었던 신청사 건립사업이 착공에 들어갔으며, 2,500억원 규모의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국가계획에 포함되면서 KTX익산역 중심의 익산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앞으로도 익산시에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창업생태계 구축 등 익산의 미래 100년을 결정지을 중요한 과제들이 놓여있다.

/익산=이득훈기자